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3호 [루게 제23430호] 주체100(2011)년 4월 23일(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라진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라진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인민보안부장 리명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진두지휘하시며 현일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걷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조선소의 로동계급의 가슴은 걱정의 파도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소의 로동계급은 나라의 수산업과 해상운수,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선박들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배우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소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배무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미래에 대한 락관과 신심에 넘쳐 충천한 기세로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아들여 조선소의 로동계급은 지난 기간 온갖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많은 배들을 무어냄으로써 나라의 선박공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해방전에는 족배 하나 제대로 무을수 없었던 우리 나라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강력한 선박공업이 창설되고 오늘은 여러가지 현대적인 배들을 척척 무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대한 생활력의 일대 시위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라진조선소는 나라의 선박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여러가지 고기배들과 함께 대형 짐배들을 많이 무어내는것은 수산업과 해상운수,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조선소에서는 더 많은 배들을 무어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선박공업은 나라의 공업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소에서는 배무이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공정을 과학화, 현대화하여 배무이기간을 줄이고 그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컴퓨터에 의한 배설계, 선체가공 및 조립에서 수조조종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더 많은 배를 무어내기 위해서는 현관된 부분들에서 그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원료를 제때에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라진조선소의 로동계급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웅적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떨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라진조선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진눈까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 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머나먼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따뜻이 고무격려 해주시며 선박공업발전의 진로를 밝혀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몫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의 가슴은 끝없는 걱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인민보안부장 리명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 현철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대장 최부일동지가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합창 《초병은 수령님께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남성중창 《조선인민군가》, 시랑송 《위대한 헌신의 기적소리》, 녀성독창과 방창 《희명의 봄》, 극선동 《병사가 받은 청찬》, 중창이야기 《우리가 앞장에 서자》, 실화선동 《군민대단결의 노래 더 높이 울려가자》, 독연극 《총포성없는 싸움》, 녀성독창 《번일전가》, 시와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시종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상이 나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거어이 완성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성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격동적인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함성인양 힘있게 울려 퍼지는 충성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들으면서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무적의 대오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몫 다 바쳐갈 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고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

게 울려주는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연합부대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고상한 도덕품도, 보람찬 군무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에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출연자들이 공연을 통하여 투철한 수령관과 혁명관을 지니고 랑만과 희열에 넘쳐 역세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군대의 참모습을 잘 펼쳐보였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새 문화창조자들인 그들의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치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예술선전대공원에서 최근에 진행한 예술선전대공연중에서 제일 훌륭한 공연이라고 하시면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을 철대

본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불사신의 용사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이 무적의 대군이 조국방선을 굳건히 사수하고있기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선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예술선전대원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공연을 보아주시고 위훈의 한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짐하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예술선전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군인들의 혁명교양에 적극 이바지 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16일 로씨야와 일본의 통신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르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출연자들이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공연을 함께 관람하시였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같은 소식을 보도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당, 전군, 전민이 어버이수령님의 강성대국

건설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라오스, 핀란드, 브라질에서 보도하였다.

12일 라오스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출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시면서 그들이 사상에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제련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압록강다이하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치고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든든하고 질긴 다이하를 생산해냄으로써 압록강다이하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또한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계트락도르종합공장과 강계고려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기술의 최첨단고지를 점령하며 고려약의 엑스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공장들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신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하였다.

핀란드 코린포름보사 인터넷잡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월제강종합기업소와 자강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11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제련소와 압록강다이하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13일에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운명 지키려 위대한 장군님 꺾임없이 이어가신 전선강행군길의 만단사면을 전하는 오성산 본사기자 리명일 찍음









